

# 광주시, 장년층 인생 2막 지원 강화한다

### 일·여가·교육 등 8대 중점과제 26개 세부사업 26억 투입 '빛고을50+센터' 거점으로 장년지원정책 체계적 추진

광주시가 퇴직 등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2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에 총 26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생애전환 교육 확대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장년정책 인프라 안정화 등 4대 영역으로, 26억원을 들여 8대 중점과제 26개 세부사업의 장년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장년층 종합지원 플랫폼인 '빛고을50+센터'를 거점으로 일·여가·건강·재무 등 전문 컨설팅

트와 동반해 상담, 경력분석 및 육구진단을 통한 생애 컨설팅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지원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애재설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베이비부머로 일컫는 장년세대의 특성과 요구, 관심사와 선호에 따라 100세 시대에 미래의 나를 알아보는 노후준비 교육,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진로탐색교육 등 다채로운 생애전환교육도 확대·운영한다.

시는 또 장년세대가 축적해 온 역량과 경륜을 사회로 환원하고, 경제적 소득활동과 함께 사회적 의미도 찾을 수 있도록 빛고을50+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300여 개도 발굴·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민간일자리 취업 희망자를 위해 구직 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일자리 박람회, 모의면접 및 이력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취업코칭서비스, 창업교육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과 연대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50+포털 등을 구축해 상담부터 컨설팅, 정보 취득, 서비스 연계까지 온라인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침이다.

광주시 거주하는 장년층(45~64세)은 전체 시민 중 31.9%인 46만여 명에 이르며,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은퇴 이

후에도 일과 여가, 사회공헌 등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매년 제도 마련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2273개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에는 동구 학동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종합지원기관인 '빛고을50+센터'를 개관했으며, 장년층 개개인의 경력과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 중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은퇴나 노화로 큰 변화를 겪는 장년세대가 걸어진 노후를 활기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 협업팀 확대 5개 부서·기관 추가 참여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무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업팀'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 부서·기관이 12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

문화경제부시장 총괄 책임으로 시에서는 기존 일자리정책실, 인공지능산업국, 일자리정책관 등에 더해 복지정책과, 문화도시정책관, 대중교통과, 건강정책과 등 4개 부서가 새롭게 참여했다.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도시공사, 광주 경제융합진흥원, GGM 등 4곳이었지만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추가됐다.

부서별 주요 협업사항은 광주형일자리 부서·기관별 업무와 예산 공유,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신속 대처, 신규 업무 발생 시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책 모색, 사전 현장점검, 애로사항 청취 후 행정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전국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형일자리 협업팀을 21회 운영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구성 논의 및 운영비 전액 시비 지원 방침,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선운 101번 시내버스 일일 6회 운영, 입주자격 심사 완료전 희망자 선입주 후 심사조치 등 주거비 지원 관련 절차 개선 및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투표소 1229곳 확정

### 거소투표신청자 8648명

오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가 광주 367곳, 전남 862곳 등 지역 내 1229곳으로 확정됐다. 전국 투표소는 1만4464곳으로 확정됐다. 장기 입원 등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광주 850명, 전남 7798명 등 8648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10만3000여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3·1절 만세삼창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1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지역 내 투표소를 확정하고, 지난 27일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지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광주의 경우 거소투표신청인 850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거주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140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인 투표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체 투표소 367곳 중 1곳(중흥3동제2투)을 제외하고 366곳(99.73%)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투표소는 지난 제21대 국회 의원선거와 동일하게 했다.

전남의 경우 거소투표신청인 7798명에게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전남선관위 역시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한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중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28일부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코너를 통해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형 AI-그린 뉴딜'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시운전

### 공정률 97.2%...9월 상업운전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민간유치 제1호 사업인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1일 시운전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착공한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오는 9월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화학 에너지를 환경친화적인 전기와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815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7.2%를 보인다. 한국중부발전, 두산건설, SK가스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에너지에서 광주시 제1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 1만 5800여㎡에 12.32MW 용량으로 구축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모델'이다. 발전소에서 생긴 열은 한국씨에스를 통해 광주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KBS 등 상무지구

26개 기관과 아파트단지 820가구에 공급된다.

광주 전체 연간 전력소비량의 1.1%, 3만 3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9만 5000M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도심권역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가 분산형 에너지 구축과 광주시의 전력자립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현과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섬 관광객 뺏앗 반값 시범 시행 전남도, 가거도 등 4개 항로

전남도는 2022년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3월 1일부터 섬을 찾는 일반인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비의 반값을 지원하는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은 대상은 목포-가거도, 여수-거문도, 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4개 항로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그동안 섬에 가고 싶으나 비싼 여객비용 때문에 주저했던 관광객이 많았으나, 이번 50% 저렴한 뺏앗 때문에 방문객이 늘 것으로 보여 여객선사 수익 개선과 섬 주민의 관광소득 창출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은 여객 운임을 할인하는 것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말, 공휴일, 성수기도 제외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할인 등 기존에 할인을 받는 경우 할인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인 만큼 수요와 사업 효과를 분석해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반인 관광객이 더 저렴한 교통비로 섬을 방문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전남을 오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1522-9341